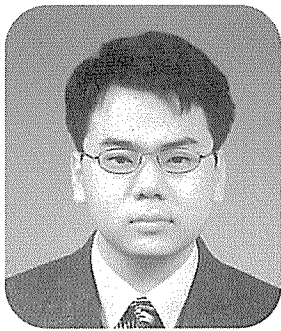


#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8)

##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대표 소프트웨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



글 / 류지창  
(주)데이콤 전리안 사업본부

**한동안** 잠잠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익스플로러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소송 이야기가 다시 신문의 이곳 저곳을 채우고 있다. 이 소송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소프트웨어인 윈도 98에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끼워서 공급하여,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한 것이며 또한 경쟁사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어떤 소프트웨어 이길래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두말할 나위없이 월드와이드웹이다. 흔히 WWW라고도 불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웹브라우저(Web Browser)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 웹브라우저는 머지 않아 지금의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

는 소프트웨어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비전을 가진 소프트웨어이다. 즉, 지금 운영체제 시장을 윈도 95라는 소프트웨어로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위치를 다른 회사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98년도 여름까지 이 시장의 승자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였다. 원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 웹브라우저는 베타버전이었던 0.9x 버전 때부터 뛰어난 기능을 무기로 하여 초창기 웹브라우저의 대명사였던 모자익의 자리를 제치고 웹브라우저의 대명사로 굳건한 자리를 잡아왔다. 마치 국내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아래아 한글이 휘어잡은 것 같은 지위였다. 하지만 인터넷 비즈니스가 미래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소프트웨어업계의 거물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시장을 그대로 돌리는 만무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이름으로 웹브라우저를 개발하여 발표하면서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마케팅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개인 이용자들은 9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기업은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상용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이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큰 강점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98년 들어서 넷스케이프사도 자사의 웹브라우저들을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승리의 깃발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신운영체제인 윈도98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넷스케이프사는 점점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국내 컴퓨터 출판계를 둘러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 인터넷관련으로 새로이 출간되는 도서들이 이미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준으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변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발표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어떠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단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그 기능면에서도 편리하고 독창적인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최신 버전은 한글/영문 버전 모두 4.01이다. 또한 5.0 버전의 Preview판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서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하여 배포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잡지부록이나 PC통신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CD에 대개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CD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http://www.microsoft.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글 인터넷 익스플로러 4.01의 경우 전체를 설치하는데는 약98MB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며, 표준설치하는 경우 72MB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한데, 표준설치와 전체설치가 다른 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외에 부가적인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설치하느냐 혹은 일부만 설치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설치가 끝나면 비로소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인 기능-예를들어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지정된 사이트의 화면이 나오는 방식 등 -은 모든 웹브라우저가 동일하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추가로 익혀두면 도움이 되는 기능이

몇가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 키보드로 F11키를 눌러주면 전체화면상태로 바뀐다. 전체화면 상태란 화면 상단의 메뉴, 도구모음들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여 웹사이트의 내용이 모니터 화면 전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으로 좁은 화면으로 많은 내용을 보아야 할 때 편리한 기능이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F11을 눌러 주면 된다.

두번째 기능은 목록보기 기능으로 자신이 여행했던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의 주소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 언제나 이 화면 상단의 도구모음에서 "목록보기"를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의 메뉴가 나타나면서 최근 날짜별로 정리된 자신의 방문기록을 살펴볼 수 있고 다시 찾아가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 경우 마우스로 한번만 해당 주소를 클릭해 주면 바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흔히 "책갈피", 혹은 "Bookmark"라고 불리는 주소 기억 기능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즐거찾기"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의 주소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메뉴에서 "즐거찾기"를 클릭한 후 다시 "즐거찾기"를 클릭하면 해당 주소가 기억된다. 기억된 주소들의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도구모음에 있는 "즐거찾기"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되는데 이 때도 "목록보기"와 마찬가지로 화면의 오른쪽에 메뉴가 나타나면서 즐겨찾기에 기록된 주소들의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많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틈틈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움말 항목의 "목차 및 색인"을 클릭하여 자세한 도움말을 읽어보며 익힌다면 인터넷 전문가의 길에 좀 더 빨리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